어린이청소년 포교행정 간소화 한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23일 첫 회의서 자문기구화 결의

포교원서 이중행정 고충
산하기구 직접 지원 방침
신임위원 13명 위촉도



5월 23일 진행된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서 위원 스님들이 행정간소화 방침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나섰다. 그동안 예산 집행 등 사업의결권을 지닌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동련과 파라미타 등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간소화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포교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제4기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가섭)는 5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에는 어린이 포교기구인 동련과 청소년 포교기구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있다. 산하기구는 사업시행 전 어청위와 협의하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어청위를 거쳐 포교원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사무국 등의 문제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풍경소리 등도 동련과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거쳐 사업보조금을 신청한다.

그동안 포교원과 어청위는 포교사업 지원에 대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이 낮은 것에 대해 고민해왔다. 포교부장이 당연직 어청위원장이며 전법팀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 이중 행정을 하고 있었다.

포교기구에서 어청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청위 사무국이 없는 관계로 현재 포교원 내 전법팀에서 접수 및 회람을 한다. 이후 행정상 어청위인 전법팀이 보조금 신청 공문 작성 및 발송을 포교원에 접수하면 이를 다시 전법팀이 회람하여 기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어청위 기구변경을 결의하고 관련 종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다. 그동안 위원 스님들이 애정을 갖고 나서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복잡한 사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일을 단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행정 변경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어청위는 4기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오심 스님(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성행 스님(동련 이사장), 주경 스님(기획실장 · 파라미타 이사), 원경 스님(중앙종회위원), 성진 스님(파라미타 상임이사), 도제 스님(동련 이사), 정무 스님(동련 이사), 정법 스님(불레협 부회장), 일지 스님(인천불교회관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정현 스님(법룡사 주지), 재마 스님(중앙승가대연구원) 등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두 아이 홀로 키우며 파산면책까지 BUT 서울형MC로 나도 '대표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② 여의도 '개성보쌈' 여문희 대표



그림 · 박구원

*본인의 요청으로 삽화로 대체하였습니다.

2005년 신용회복과 2011년 파산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여문희(48) 씨.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서른 초반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만도 벅찬 수입이었다.

그러던 중 여 씨는 두 아이가 다니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때가 바로 여 씨가 일하던 식당을 인수해 '대표님'이 된 계기였다.

"32살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그 식당에서 일했어요. 일에 재미가 붙고 단골손님도 생기다보니 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단 욕심이 생겼죠. 하지만 저축은커녕 목돈 마련도 쉽지 않던 때라 창업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다 신길사회복지관의 추천으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 씨는 2013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초창기엔 마음처럼 큰 수입을 내진 못했지만 밑반찬부터 주메뉴까지 여 씨가 직접 조리하며 정성껏 사업장을 운영한 끝에 가게 사정이 점차 나아졌다. 이에 따라 여 씨는 만기상환일인 2018년보다 2년 앞선 2013년,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다.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 씨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때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여 씨에게 큰 도움이 됐다. 노후시설 개선을 원했던 여 씨에게 한 달에 한 번 파견됐던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일러주며 고민이 해결된 것이다.

"저 혼자라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도 지엽적인 고민에 그칠 텐데 전문적으로 조언해주시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당시 주방시설, 인테리어가 많이 노후해 걱정이었는데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금 2,000만원을 받아 가게 시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월평균 1,600만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여 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시작된 그녀의 작은 꿈이 훗날 "내가 받았던 도움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원대한 목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수장고서 빛 못본 '사리', 사찰로

6월 9일 조계사 국운융성 위한 사리친견법회 개최

國搏 소장 40과 이운

국가 소유의 사리가 불교계로 돌아온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9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조계사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 공개되는 사리는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던 것으로 모두 40과에 달한다.

조계사의 사리친견법회는 조계종 측과 정부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그동안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리에 대한 환수를 지속 추진해왔다. 대부분의 사리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는 현실에서다.

2016년 5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년간 국공립박물관에 있는 사리를 장기대여 방식으로 원소재지로 반환하기로 했으며 1차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부여 무량사 설잠 스님 사리 1과, 경주 분황사 석탑 사리 4과,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사리 35과 등 총 40과를 1차로 반환하기로 했다.

사리친견법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경복궁 정문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운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취타대와 함께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어 대웅전 앞 친견대에 사리를 모신 뒤 범종, 법고, 고불문, 친견 등의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리친견법회 후 설잠 스님 부도 사리는 부여 무량사로, 분황사 석탑 사리는 경주 분황사로,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은 사리 35과는 조계사에 봉안된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계종에 반환되는 사리는 총 129과에 달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총무부장)은 "그동안 폐사지서 출토된 사리와 출토지 미상의 사리 등 수많은 사리가 박물관 수장고에서 종교성이 상실된 채 보관돼 왔다"며 "사찰로 사리를 이운해 다시 예경의 대상으로 가치를 복원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이주민 한국전통문화기행 개최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160명 대상으로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흥우)는 6월 11일 불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기행을 개최한다. 이번 한국전통문화기행은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국가 공동체 별 10명씩 참가 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기행은 봉은사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관람 후 남산서울타워, 남산골 한옥마을, 창덕궁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용산 가족공원에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끝으로 해산된다.

국제포교사회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정신에 입각해 타국에서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불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경력단절…하지만 희망 찾았죠!"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 창업 지원 교육 화제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꼼꼼한 창업지원 관리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5월 22일 사하구 센터에서 개최한 '디저트카페메뉴' 실습에서는 참가한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디저트카페메뉴' 실습은 2017년 개설된 강좌 중 하나로 3일 간 참가자들이 디저트 제작을 배우로 카페 창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원이 10명이지만 16명이 수업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

참가자 김영안 씨는 "이곳에서 얻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의 정보, 쇼핑몰 운영방법 등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진이 창업 상담사는 "강의도 전문강사 보다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를 초빙해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수탁운영하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남성용 여성용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시계 점안식

낱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 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약력
- 대한불교정음사원 원장
- 불교조계종관음사주지
- 심령과학 영상확회 회장
- 한국 장례문화 연구원장
-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장
- 대체의학기(氣)연구소장 www.kgf21.kr
- 대한민국 37개 불교종단으로부터 심령학자 인증과 불교대체의학 연구상 수상

방송출연
- MBC 일요스페셜 '기 신비에서 과학으로'
- KBS 미스터리 추적 '영의 수수께끼 저주'
- KBS 미스터리 추적 '기 염력'
- KBS 놀라운 TV '기 염력'
- SBS 토요미스터리 '혼령이 있는곳'
- HBS 영혼과 대화 (귀신은 있다)
- HBS 숨어있는 의술명인 (난치병을 고친다)



정음 큰스님
가정과 개인 상담전화
(010-4142-0924)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